

미용학과 학생들의 진로태도와 진로선택성향

홍보경*
경일대학교

The Career Attitude and Career Choice of Cosmetology University Students

Hong-Bo Kyung*
Kyungil University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MBTI personality type and career attitude and career choice of cosmetology university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by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Chi-square test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In regard to career-related attitude, ISTJ type out of 16 MBTI is higher than other type on the positive attitude. In regard to the relationship of MBTI and career choice, ISTP, ISFP and ENFJ type is more prefer skin care than the other type. And INTP type is more prefer hair design and makeup. And also the psychological functional type and career choice, ST showed the preference on skin care, and SF preferred makeup field. Finally NT and NF psychological functional type showed the preference on hair design.

Key Words : MBTI, Personality Type, Career Attitude, Career Choice

* 본 논문은 2011년도 경일대학교 신입교원정착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I. 서론

사람은 누구나 각자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한다. 특히 대학시절은 생애 주기 중 가장 직업 선택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시기라 할 수 있다. 미래에는 직업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세분화되어 개인이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와 폭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각 개인이 자기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과 직업을 선택하는 데는 매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개인은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 및 정보의 습득은 물론 각자 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직업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필요성 때문에 자신의 관심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1].

직업은 개인에게 있어 경제적 욕구충족과 더불어 많은 심리적,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준다. 개인에게 있어 자신이 일하는 것을 즐길 수 있고 삶에 의미 있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특히, 학교를 떠나 새로운 사회로 나가야 하는 대학생들에게 있어서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는 본인의 자아실현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기에 진로선택은 개인발달에 중대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2]. 최근 사회전반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전공 및 취업분야가 적성과 맞지 않아 고민하다가 결국 학업을 중단하거나 다른 전공으로 바꾸는 학생들이 많은 점을 고려해 볼 때, 개인의 관심, 성격, 능력에 따른 진로선택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더 잘 할 수 있는 능력의 발견, 그리고 적절한 준비를 통해 대학을 졸업하기 전부터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자신만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키워 간다면, 취업이 어려운 오늘날 현실에서도 뚜렷한 목표의식을 갖고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3]. 또한 해당 학과의 전공과 특성을 최대한 살려 학생들의 욕구와 현재의 상태를 이해하고 그에 알맞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준비도 필요할 것이다[4].

현대사회는 급속한 산업 발달과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아름다움(미)을 추구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을 자극시키고 이에 따른 미(美)의 추구는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로서 우리 삶 속의 절대적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시대적 변화와 더불어 아름다움과 건강에 대한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각광받고 있는 직업군의 하나가 미용관련 분야로서 향후 보다 전문화되고 세분화되어 발전될 전망이다[5]. 또한 국내 피부비만관련 서비스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6], 보건산업에서 부가가치와 고용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최근 뷰티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잠재 성장력이 큰 분야가 뷰티산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뷰티산업과 미용 관련하여 국내에는 전국적으로 2년제와 4년제를 포함하여 150여개의 대학과 30여개의 대학원 석박사과정의 개설되어 있으며 인력이 배출되고 있다. 미용학과는 타 학과에 비해 학과 특성이 비교적 뚜렷하여 미용학과에 진학하였다는 것 자체로 이미 진로가 결정되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매우 크다. 그러나 건강과 아름다움에 대한 높아지는 시대적 변화와 함께 미용분야 역시 다각도로 세분화, 전문화 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최근 미용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각도의 직업 인식도, 직업 선호도, 직업관에 관한 연구들이 실시되고 있지만 미용학과 재학생들의 다양한 성격유형에 따른 세분화된 진로 상담 및 관련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미용학과 학생들은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수준이나 단순한 흥미 위주로 진로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진로상담이 가능하도록 진로상담영역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성격유형(MBTI) 검사를 통해 개별 성격유

형에 따른 진로관련태도 및 진로선택성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개인별 성향을 고려한 맞춤형 진로지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용학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격유형(MBTI: Myers-Briggs Type Indicator) 검사를 이용하여 학생들의 성격 유형을 파악하고, 성격유형(MBTI)에 따른 진로관련태도 및 진로선택성향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MBTI 성격유형 이론

성격유형(MBTI)는 Jung(1971)[7]의 심리유형이론과 태도이론에 근거하여 Briggs와 Myers가 고안한 자기보고식 성격유형지표이다[8]. MBTI 이론에 의하면 선호경향을 나타내는 4가지 지표(E-I, S-N, T-F, J-P)가 있는데, 4가지 지표마다 양극을 이루는 두 가지 썸의 선호경향이 있다<표 1>.

<표 1> MBTI 4가지 선호 경향

MBTI 4가지 선호 지표		
외향(E) Extraversion	에너지 방향/주의초점	내향(I) Introversion
감각(S) Sensing	인식기능/정보수집	직관(N) iNtuition
사고(T) Thinking	판단기능/결정기능	감정(F) Feeling
판단(J) Judging	행동양식/생활양식	인식(P) Perceiving

심리 유형에 대한 융(Jung)의 포괄적인 이론을 보면 인간은 누구나 감각(Sensing, S), 직관(iNtuition, N), 사고(Thinking, T), 감정(Feeling, F)이라 불리는 네 가지의 기본적인 정신적 기능 또는 과정을 사용한다. 인간은 이 네 가지의 본질적인 기능을 매일 사용할 때 어떤 태도나에 따라 외향성(Extraversion, E)과 내향성(Introversion, I)으로 나누어지며, 외부세계에 대한 태도와 행동을 나타내는 판단(Judging, J), 인식(Perception, P)의 선호경향을 가지게 된다[9]. 그리고 MBTI의 4가지 차원이 조합을 이루면 16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유형의 분류는 4차원의 대립 쌍의 알파벳의 머리글자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것이다<표 2>.

마지막으로 MBTI의 4가지 심리적 기능으로 MBTI 성격도표에서 종렬의 네 집단이 있는데 인식(S와 N)과 판단(T와 F)의 배합에 따라 감각적 사고형(ST), 감각적 감정형(SF), 직관적 사고형(NT), 직관적 감정형(NF)의 4가지 심리적 기능형으로 구분된다[10]다. 감각적 사고형(ST)은 실제적 사실 중심적 유형으로서, 인식할 때 주로 감각에 의존하고, 판단할 때는 주로 사고를 사용한다. 감각적 감정형(SF)은 동정적 우호적 유형으로서 감각적 사고형(ST)과 마찬가지로 인식할 때 주로 감각을 사용하나 판단할 때는 감정을 선호한다. 직관적 사고형(NT)은 논리적 창의적 유형으로서, 인식할 때 주로 직관을 사용하며 판단할 때에는 사고의 객관성을 중시한다. 직관형 감정형(NF)은 열정적 통찰적 유형으로 감각적 감정형(SF)와 마찬가지로 판단할 때 감정을 사용하기 때문에 따뜻한 온정의 소유자이다. 그러나 인식할 때에는 감각보다 직관을 선호하기 때문에 구체적 상황에는 관심을 두지 않으며, 가능성을 발휘하는 분야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통찰력이 있고 정열적인 유형이다.

<표 2> MBTI 16가지 성격유형

	구분	감각형(S)		직관형(N)	
		사고형(T)	감정형(F)	감정형(F)	사고형(T)
내향성(I)	판단형(J)	ISTJ	ISFJ	INFJ	INTJ
	인식형(P)	ISTP	ISFP	INFP	INTP
외향성(E)	인식형(P)	ESTP	ESFP	ENFP	ENTP
	판단형(J)	ESTJ	ESFJ	ENFJ	ENTJ

2. 미용관련 진로 선택 분야

일반적으로 미용이란 복식 이외의 여러 가지 인위적 방법으로 용모에 물리적, 화학적 기교를 행하는 것으로 얼굴, 두발, 피부, 손, 발톱 등의 상태를 개선하고 아름답게 미화시키는 예술이며, 동시에 과학적 이론을 응용한 것이다[11]. 미용의 목적은 사람들의 용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과 건강에 대한 유지 증진을 도모하는 데 있다.

미용관련 진로선택분야는 미용의 영역 분류와 일맥상통하는 데 크게 헤어디자인(hair design), 메이크업(make-up), 피부미용(skin care), 네일 아트(nail art), 두피관리(trichology), 코디네이션(coordination)으로 분류된다[12]. 헤어디자인이란 개인의 요구에 적합한 이미지나 아름다움을 만들어 내기 위해 시대 변화의 흐름과 기능 그리고 미적인 측면을 고려한 적합한 색채와 형태를 기획하고 만드는 것이며, 유형에는 헤어컷트, 색채는 염색, 질감은 허에 펴에 비유할 수 있다.

메이크업(make-up)은 결점을 보완하고 더욱 아름답게 보이도록 표현하는 것이며 아름다움을 창출하는 행위이다. '꾸민다'는 뜻으로 화장, 분장, 의상, 모발 등에 공통적으로 폭넓게 응용 할 수 있고,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된다. 피부미용(skin care)은 피부를 관리하여 보다 건강한 피부로 개선하고, 유지시키는 활동을 말하며, 물리적, 화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피부의 생리기능을 높이고 신진대사를 활성화시켜 영양을 공급함으로써 아름답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시켜 주는 것을 말한다.

네일 아트(nail art)란 손 마사지, 컬러링, 광택내기, 큐티클 정리 등과 손과 손톱을 관리하고 아름답게 꾸미는 것을 주로 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두피관리(trichology)는 두피의 청결과 두피 뿐만 아니라 두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모발까지의 건강을 위한 다양한 미용 시술로서 일상적인 샴푸나 두피 스킨링, 트리트먼트를 포함하며, 기타 다른 의료기기로 두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코디네이션(coordination)이란 두 종류 이상의 것을 통합하고 조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미용학과 대학생들이 졸업 후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분야는 크게 이 범주 속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하겠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대구·경북지역 K대학교 미용학과 1학년에서 4학년까지 재학생이다. 미용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격유형(MBTI), 진로관련 태도, 진로선택성향 등에 대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기존 문헌고찰을 통하여 설문지를 개발하였으며, 설문지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사전조사를 2011년 11월 1일부터 4일까지 4일간 실시하였고, 사전조사결과를 근거로 설문지를 수정·보완하여 본 조사에 이용하였다. 본 조

사는 2011년 11월 7일부터 18일까지 2주에 걸쳐 수행되었다. 설문 조사는 조사목적 및 취지를 설명한 후 학생들이 직접 입력하는 형태의 자기기입식 설문형태로 진행되었다. 설문조사 결과 140명이 응답을 하였으며, 이 중에서 무응답이 많거나 확실적인 점수를 부여한 응답지 16부를 제외한 124부가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되었다.

2. 조사도구

조사도구는 면접조사를 위한 구조화된 설문지로, 미용학과 재학생들이 생각하는 성격유형(MBTI)과 진로관련태도 및 진로선택성향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설문지는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7개 문항(성별, 학년, 전공만족도, 학업성적, 미용관련 학교/학원 수학여부, 미용관련 자격증 취득 여부, 미용교육기간), 성격유형(MBTI)조사 94개 문항, 진로관련태도 29개 문항(긍정적 태도 16문항, 부정적 태도 13개 문항) 등 크게 3개 영역 130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성격유형(MBTI) 검사는 김정택 등[13]이 한국어판으로 표준화한 성격유형(MBTI) 검사지 Form GS 전체 94문항을 사용하였다. 외향(E)-내향(I), 감각(S)-직관(N), 사고(T)-감정(F), 판단(J)-인식(P)의 4가지 지표와 각 지표별로 2가지 선호 유형이 조합되어 총 16가지 성격유형으로 구분되며 검사결과는 성격의 옳고 그름 또는 개인의 선호 경향을 의미한다.

그리고 진로관련태도는 '내 전공학과의 교육내용에 흥미를 느낀다', '내 전공학과에서 배우는 교과목이 나와 잘 맞다', '내 전공학과는 내가 다닐만한 학과이다', '내 전공에서 무언가 가치 있는 것을 배우고 있다고 느낀다', '내 전공에 대해서 만족한다', '나는 취업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 '나는 내가 선택한 전공에 대해 편안함을 느끼며 어떻게 수행

해 나갈지를 알고 있다' 등 긍정적 태도 16개 문항과 '나는 똑같이 호감이 가는 직업들 중에서 하나를 결정하느라고 애를 먹고 있다', '나는 결국 직업을 가져야 하지만 내가 아는 어떤 직업에도 호감을 느끼지 못한다', '나의 전공분야가 내가 만족할 만한 진로를 제공해 줄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 '나는 나의 적성과 능력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진로결정을 당장 결정할 수 없다', '나는 나의 관심분야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다', '흥미를 끄는 분야가 몇가지 있지만 나의 진로 가능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 등 부정적 태도 1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로관련태도의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부터 '매우 그렇다'의 4점까지 Likert형태의 4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3. 분석방법

자기기입식 설문지와 성격유형(MBTI) 검사지를 통해 조사된 자료는 PASW Statistic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내용은 첫째, 기술통계측면에서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변수를 먼저 살펴본 후, 성격유형(MBTI), 선호지표별, 심리기능 유형별 분포를 분석하였다. 둘째, 4점 척도로 구성된 진로관련태도의 기술통계량 및 문항들의 신뢰도 검정을 위해 Cronbach' α 계수값을 산출하여 내적일치도를 살펴본 후 t-test와 분산분석(ANOVA)을 통해 성격유형(MBTI), 선호지표별, 심리기능 유형별 진로관련태도에 대한 차이 분석을 하였다. 분산분석의 경우 Scheffe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셋째, 교차분석(Chi-Square test)를 통해 성격유형(MBTI), 선호지표별, 심리기능 유형별 진로선택성향에 대한 차이 분석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로지스틱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진로관련태도와 성격유형(MBTI)이 미용학과 학생들의 진로선택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각각 11명(8.9%) 순으로 조사되었다<표 4>.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먼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의 경우 남성 11명(8.9%)보다는 여성 112명(90.3%)이 많았다. 학년은 1학년 48명(38.7%)이 가장 많았고, 2학년 32명(25.8%), 3학년 31명(25.0%), 4학년 13명(10.5%) 순으로 조사되었다. 전공만족도의 경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57명(46.0%)이 가장 많았다. 학업성적의 경우 3.6~4.0이 37명(30.3%)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미용관련 학교 및 학원을 다닌 적이 있는 학생이 98명(79.0%)으로 조사되었으며, 미용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이 87명(70.2%)로 높게 조사되었다. 미용관련 총 교육기간을 보면 1년~3년 미만이 39명(31.7%), 3년~5년 미만이 36명(29.3%) 순으로 조사되었다<표 3>.

<표 3>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	%
성별	남성	11	8.9
	여성	112	91.1
학년	1학년	48	38.7
	2학년	32	25.8
	3학년	31	25.0
	4학년	13	10.5
전공만족도	불만족함	2	1.6
	보통임	37	29.8
	만족함	57	46.0
미용관련만족도	매우만족함	28	22.6
	2.5이하	22	18.0
	2.6~3.0	23	18.9
	3.1~3.5	25	20.5
학업성적	3.6~4.0	37	30.3
	4.1이상	15	12.3
	미용관련학교/학원수학유무	예	98
	아니오	26	21.0
미용관련자격증취득여부	예	87	70.2
	아니오	37	29.8
미용교육기간	1년미만	31	25.2
	1년~3년미만	39	31.7
	3년~5년미만	36	29.3
	5년이상	17	13.8
합계		124	100.0

2. 응답자의 성격유형(MBTI), 선호지표별, 심리기능 유형별 분포

응답자의 성격유형(MBTI)별 분포를 보면 ESNP 유형이 16명(12.9%)로 가장 높게 분석되었다. 그 다음으로 ESTJ유형이 15명(12.1%), ENFP유형이 14명(11.3%), 그리고 ISTJ유형, ESTP유형, ESFJ유형이

<표 4> 응답자의 성격유형(MBTI) 분포 (N=124)

단위 : 명(%)

구분		감각형(S)		직관형(N)	
		사고형(T)	감정형(F)	감정형(F)	사고형(T)
내향성(I)	판단형(J)	ISTJ 11(8.9)	ISFJ 5(4.0)	INFJ 0(0.0)	INTJ 0(0.0)
	인식형(P)	ISTP 6(4.8)	ISFP 4(3.2)	INFP 6(4.8)	INTP 5(4.0)
외향성(E)	인식형(P)	ESTP 11(8.9)	ESFP 16(12.9)	ENFP 14(11.3)	ENTP 9(7.3)
	판단형(J)	ESTJ 15(12.1)	ESFJ 11(8.9)	ENFJ 7(5.6)	ENTJ 4(3.2)

응답자의 선호지표별 분포를 보면 먼저 외향성(E)-내향성(I)의 경우 외향성(E)이 88명(71.0%)으로 미용학과 학생들의 경우 내향적 성향보다는 외향적 성향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감각형(S)-직관형(N)의 경우 감각형(S)이 79명(63.7%)으로 직관형(N) 보다 높게 분석되었다. 사고형(T)-감정형(F)의 경우 62명(50.0%)으로 동등하게 파악되었다. 마지막으로 판단형(J)-인식형(P)의 경우 판단형(J)보다는 인식형(P)이 71명(57.3%)로 높게 분석되었다 <표 5>.

<표 5> 응답자의 선호지표별 분포

구분	빈도	퍼센트	합계
외향성(E)	88	71.0	124(100.0)
내향성(I)	36	29.0	
감각형(S)	79	63.7	124(100.0)
직관형(N)	45	36.3	
사고형(T)	62	50.0	124(100.0)
감정형(F)	62	50.0	
판단형(J)	53	42.7	124(100.0)
인식형(P)	71	57.3	

응답자의 심리기능 유형별 분포를 보면 실제적 사실 중심적(ST)이 43명(34.7%)으로 가장 높게 분석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동정적 우호적(SF) 36(29.0%), 열정적 통찰적(NF) 27명(21.8%), 논리적 창의적(NT) 18명(14.5%) 순으로 조사되었다<표 6>.

<표 6> 응답자의 심리기능 유형별 분포

구분	빈도	퍼센트
실제적 사실 중심적(ST)	43	34.7
동정적 우호적(SF)	36	29.0
논리적 창의적(NT)	18	14.5
열정적 통찰적(NF)	27	21.8
합계	124	100.0

3. 성격유형(MBTI), 선호지표별, 심리기능 유형별 진로관련태도에 대한 차이 검정

4점 척도로 구성된 진로관련태도의 경우 먼저 기술통계량 산출과 함께 측정된 각 문항들이 측정하고자 하는 이론변수들을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지 검정하기 위해 문항들의 신뢰도를 검정하였다. 그리고 성격유형(MBTI), 선호지표별, 심리기능 유형별에 따른 긍정적 태도와 부정적 태도의 차이를 검정하였다. 분석결과 긍정적 태도의 전체 평균은 4점 만점에 2.986점으로 분석되었으며, 부정적 태도의 평균은 2.363점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두 변수의 Cronbach' α 계수 값은 각각 0.889와 0.859로 내적 일치도가 모두 높게 분석되었다<표 7>.

그 다음으로 성격유형(MBTI), 선호지표별, 심리기능 유형별 진로관련태도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성격유형(MBTI)별 차이를 보면 긍정적 태도와 부정적 태도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긍정적 태도의 경우 ISTJ유형이 평균 3.114점으로 가장 높게 확인되었다. 부정적 태도의 경우 INFP유형이 2.667점으로 가장 높게 분석되었다.

선호지표별 차이를 보면 먼저 긍정적 태도의 경우 내향성(I)보다는 외향성(E)의 평균이 높았으며 ($p<0.1$), 감각형(S) 보다는 직관형(N)의 평균이 높았다. 사고형(T)과 감정형(F)의 평균은 큰 차이가 없었으며, 인식형(P) 보다는 판단형(J)의 평균이 높았다. 부정적 태도의 경우 직관형(N) 보다는 감각형(S)의 평균이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1$).

마지막으로 심리기능 유형별 차이를 보면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긍정적 태도의 경우 열정적 통찰적(NF) 심리기능의 평균이 3.02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부정적 태도의 경우 실제적 사실중심적(ST) 심리기능의 평균이 2.457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8>.

<표 7> 응답자의 심리기능 유형별 분포

구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신뢰도 (Cronbach' α)
진로관련 긍정적 태도	2.063	4.000	2.986	0.349	0.889
진로관련 부정적 태도	1.308	3.538	2.363	0.430	0.859

<표 8> 성격유형(MBTI), 선호지표별, 심리기능 유형별 진로관련태도에 대한 차이

구분	진로관련 긍정적 태도				진로관련 부정적 태도				
	평균	표준편차	t or F	p	평균	표준편차	t or F	p	
성격유형(MBTI)	ISTJ	3.114	0.302		2.364	0.458			
	ISFJ	2.875	0.234		2.446	0.138			
	ISTP	2.792	0.337		2.551	0.273			
	ISFP	2.672	0.236		2.442	0.346			
	INFP	2.848	0.379		2.667	0.656			
	INTP	2.800	0.605		2.308	0.801			
	ESTP	2.841	0.307	1.111	0.358	2.587	0.353	1.178	0.305
	ESFP	3.041	0.348			2.364	0.374		
	ENFP	3.071	0.357			2.198	0.365		
	ENTP	3.076	0.332			2.299	0.402		
	ESTJ	3.042	0.360			2.391	0.420		
	ESFJ	3.038	0.298			2.308	0.338		
	ENFJ	3.080	0.398			2.187	0.527		
	ENTJ	3.000	0.270			1.942	0.441		
선호지표별	외향성(E)	3.025	0.333	1.920	0.057	2.322	0.403	-1.616	0.109
	내향성(I)	2.893	0.374			2.459	0.482		
	감각형(S)	2.973	0.331	-0.523	0.602	2.418	0.367	1.719	0.090
	직관형(N)	3.008	0.381			2.268	0.511		
	사고형(T)	2.980	0.357	-0.192	0.848	2.392	0.448	0.774	0.440
	감정형(F)	2.992	0.344			2.332	0.413		
	판단형(J)	3.042	0.317	1.542	0.126	2.313	0.415	-1.110	0.269
	인식형(P)	2.944	0.368			2.400	0.440		
심리기능유형별	실제적 사실중심적(ST)	2.974	0.342			2.457	0.396		
	동정적 우호적(SF)	2.972	0.321	0.139	0.936	2.369	0.326	1.544	0.207
	논리적 창의적(NT)	2.983	0.407			2.222	0.534		
	열정적 통찰적(NF)	3.024	0.370			2.299	0.504		

4. 성격유형(MBTI), 선호지표별, 심리기능 유형별 진로선택성향에 대한 차이 검증

성격유형(MBTI), 선호지표별, 심리기능 유형별 진로선택성향(헤어디자인, 피부관리, 네일아트, 메이크업, 분장)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성격유형(MBTI)에 따른 차이를 보면 성격유형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유형은 ISTP, ISFP, INTP, ENEJ, ENTJ로 50.0%이었다. ISTP 유형에서는 피부관리가 50.0%로 가장 높았으며, 나머지 헤어디자인, 메이크업, 분장은 16.7%로 동일하였다. ISFP 유형에서는 피부관리가 50.0%로 가장 높았으며, 메이크업, 분장이 각각 25.0%로 분석되었다. INTP 유형에서는 헤어디자인과 메이크업이 50.0%로 높게 조사되었다. ENFJ 유형에서는 피부관리가 50.0%로 가장 높았으며, ENTJ 유형에서는 분장이 50.0%로 가장 높았으며, 헤어디자인과 피부관리가 각각 25.0%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선호지표별 진로선택성향의 차이를 보면 외향성(E)과 내향성(I) 모두 피부관리가 가장 높았다. 감각형(S)에서는 피부관리가 34.6%로 가장 높았으며, 직관형(N)에서는 헤어디자인이 33.3%로 높게 분석되었다. 사고형(T)에서는 피부관리가 33.3%로 가장 높았고, 감정형(F)에서는 피부관리와 메이크업이 28.3%로 높았다. 판단형(J)에서는 피부관리가 37.3%로 높았으며, 인식형(P)에서는 헤어디자인이 29.0%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심리기능 유형별

진로선택성향의 차이를 보면 실제적 사실중심적(ST) 심리기능에서는 피부관리가 38.1%로 가장 높았고, 동정적 우호적(SF) 심리기능에서는 메이크업이 36.1%로 가장 높았다. 그리고 논리적 창의적(NT) 심리기능과 열정적 통찰적(NF) 심리기능은 모두 헤어디자인이 가장 높은 결과를 보였다<표 9>.

5. 미용학과 학생들의 진로선택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진로관련태도를 포함하여 미용학과 학생들의 성격유형(MBTI)이 학생들의 진로선택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먼저 헤어디자인의 경우를 보면, ENTJ 성격유형보다는 INTP, ESFP, ENFJ 유형이 헤어디자인을 선택할 확률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p < 0.05$). 피부관리의 경우 ENTJ 성격유형보다는 ESTJ 유형이 1.6배, ISTP 유형이 1.3배, ISFP와 ENTP 유형이 1.1배 피부관리를 선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메이크업의 경우 ENTJ 성격유형보다는 INTP 유형이 29.7배, ESTP 유형이 5.8배, ESFP 유형이 7.6배 메이크업을 선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장의 경우 ENTJ 성격유형보다는 ESFP, ENTP, ESTJ 유형이 분장을 선택할 확률은 높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p < 0.05$)

<표 9> 성격유형(MBTI), 선호지표별, 심리기능 유형별 진로선택성향에 대한 차이

구분	진로선택성향						계	Chi-square	p
	헤어디자인	피부관리	네일아트	메이크업	분장				
성격유형 (MBTI)	ISTJ	27.3	45.5	9.1	9.1	9.1	100.0	45.062	0.741
	ISFJ		40.0	40.0	20.0		100.0		
	ISTP	16.7	50.0		16.7	16.7	100.0		
	ISFP		50.0		25.0	25.0	100.0		
	INFP	33.3		33.3	33.3		100.0		
	INTP	50.0			50.0		100.0		
	ESTP	27.3	27.3	9.1	27.3	9.1	100.0		
	ESFP	25.0	25.0		43.8	6.3	100.0		
	ENFP	38.5	23.1	15.4	7.7	15.4	100.0		
	ENTP	33.3	33.3	11.1	11.1	11.1	100.0		
	ESTJ	28.6	35.7	7.1	21.4	7.1	100.0		
	ESFJ	18.2	27.3	18.2	36.4		100.0		
	ENFJ	16.7	50.0	16.7	16.7		100.0		
	ENTJ	25.0	25.0			50.0	100.0		
선호지표별	외향성(E)	27.1	29.4	10.6	23.5	9.4	100.0	0.400	0.982
	내향성(I)	22.9	34.3	11.4	22.9	8.6	100.0		
	감각형(S)	21.8	34.6	9.0	26.9	7.7	100.0	4.911	0.297
	직관형(N)	33.3	23.8	14.3	16.7	11.9	100.0		
	사고형(T)	30.0	33.3	6.7	18.3	11.7	100.0	5.077	0.280
	감정형(F)	21.7	28.3	15.0	28.3	6.7	100.0		
	판단형(J)	21.6	37.3	13.7	19.6	7.8	100.0	3.193	0.526
	인식형(P)	29.0	26.1	8.7	26.1	10.1	100.0		
심리기능유형별	실제적 사실중심적(ST)	26.2	38.1	7.1	19.0	9.5	100.0	11.927	0.452
	동정적 우호적(SF)	16.7	30.6	11.1	36.1	5.6	100.0		
	논리적 창의적(NT)	35.3	23.5	5.9	17.6	17.6	100.0		
	열정적 통찰적(NF)	32.0	24.0	20.0	16.0	8.0	100.0		

<표 10> 미용학과 학생들의 진로선택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구분	헤어디자인			피부관리			네일아트			메이크업			분장				
	B	p	Exp(B)	B	p	Exp(B)	B	p	Exp(B)	B	p	Exp(B)	B	p	Exp(B)		
상수	-9.65	0.13	0.0	5.84	0.21	342.2	-14.97	0.75	0.0	4.35	0.46	77.5	4.28	0.46	72.0		
일반적 특성	성별 (ref: 여성)	남성	3.26	0.02	26.1	-1.36	0.17	0.3	0.48	0.74	1.6	0.09	0.92	1.1	-0.34	0.77	0.7
	학년 (ref: 4학년)	1학년	2.37	0.10	10.7	-1.52	0.13	0.2	-0.41	0.77	0.7	0.77	0.50	2.2	4.77	0.01	118.4
		2학년	2.59	0.06	13.4	-0.46	0.60	0.6	0.93	0.48	2.5	-0.88	0.41	0.4	1.66	0.30	5.2
		3학년	1.00	0.46	2.7	0.08	0.92	1.1	-2.66	0.08	0.1	-0.54	0.60	0.6	2.49	0.10	12.1
	전공만족도 (ref: 매우만족)	불만족	-3.83	0.95	0.0	-4.10	0.95	0.0	6.44	0.95	628.0	-15.12	0.50	0.0	-4.02	0.97	0.0
		보통	-1.61	0.13	0.2	-0.45	0.57	0.6	4.13	0.02	62.3	-0.42	0.66	0.7	-1.61	0.14	0.2
		만족	0.61	0.49	1.8	-0.75	0.31	0.5	3.15	0.02	23.2	-1.79	0.04	0.2	-0.80	0.41	0.5
	학업성적 (ref: 4.1이상)	2.5이하	2.52	0.17	12.4	1.81	0.12	6.1	-5.41	0.04	0.0	-2.63	0.06	0.1	-0.99	0.51	0.4
		2.6~3.0	1.91	0.26	6.8	0.57	0.58	1.8	-1.63	0.32	0.2	-4.05	0.00	0.0	-0.06	0.96	0.9
		3.1~3.5	3.63	0.04	37.8	0.45	0.66	1.6	-0.93	0.54	0.4	-4.27	0.00	0.0	-1.46	0.35	0.2
		3.6~4.0	0.65	0.69	1.9	1.18	0.17	3.3	-1.63	0.23	0.2	-1.83	0.10	0.2	-0.06	0.96	0.9
	학교/학원 수학 여부 (ref: 아니오)	예	2.55	0.03	12.7	-1.22	0.18	0.3	-1.15	0.40	0.3	0.57	0.58	1.8	-0.43	0.66	0.6
	자격증 취득여부 (ref: 아니오)	예	1.59	0.09	4.9	0.13	0.87	1.1	0.78	0.48	2.2	-1.53	0.07	0.2	-0.15	0.87	0.9
	교육기간 (ref: 5년이상)	1년미만	4.42	0.01	82.7	-0.33	0.75	0.7	-4.05	0.02	0.0	-0.63	0.59	0.5	-2.03	0.20	0.1
		1년~3년미만	2.22	0.11	9.2	0.17	0.85	1.2	-2.81	0.04	0.1	-0.99	0.34	0.4	-1.18	0.33	0.3
3년~5년미만		3.03	0.03	20.7	-0.28	0.71	0.8	-2.55	0.06	0.1	-0.78	0.42	0.5	-1.04	0.31	0.4	
진로관련 긍정적 태도(서열)	1.31	0.32	3.7	-1.66	0.11	0.2	2.89	0.08	18.0	-1.33	0.32	0.3	-1.86	0.18	0.2		
진로관련 부정적 태도(서열)	-0.31	0.77	0.7	0.29	0.71	1.3	-2.36	0.10	0.1	1.81	0.04	6.1	1.19	0.21	3.3		
성격유형 (ref: ENTJ)	ISTJ	-3.36	0.16	0.0	-0.24	0.87	0.8	11.86	0.80	1414.8	-0.50	0.81	0.6	-2.30	0.19	0.1	
	ISFJ	-1.53	0.54	0.2	-0.36	0.84	0.7	15.42	0.74	49657.1	-1.98	0.41	0.1	-12.01	0.75	0.0	
	ISTP	-4.24	0.12	0.0	0.24	0.90	1.3	4.75	0.94	1.6	0.02	0.99	1.0	-2.82	0.22	0.1	
	ISFP	-8.40	0.78	0.0	0.09	0.96	1.1	3.83	0.95	0.1	-0.84	0.72	0.4	-2.39	0.24	0.1	
	INFP	-2.37	0.37	0.1	-1.39	0.44	0.2	14.88	0.75	28945.3	-2.17	0.37	0.1	-0.77	0.70	0.5	
	INTP	-5.65	0.04	0.0	-7.50	0.79	0.0	11.58	0.80	1067.8	3.39	0.16	29.7	-11.57	0.79	0.0	
	ESTP	-2.99	0.22	0.1	-1.78	0.27	0.2	12.32	0.79	2245.2	1.75	0.42	5.8	-3.00	0.12	0.0	
	ESFP	-5.71	0.02	0.0	-1.01	0.51	0.4	13.07	0.78	4722.6	2.02	0.32	7.6	-4.13	0.04	0.0	
	ENFP	-4.15	0.09	0.0	-1.30	0.44	0.3	13.82	0.77	10060.7	-1.57	0.47	0.2	-2.40	0.20	0.1	
	ENTP	-4.77	0.05	0.0	0.14	0.93	1.1	10.79	0.82	483.0	0.70	0.73	2.0	-3.18	0.04	0.0	
	ESTJ	-2.91	0.22	0.1	0.47	0.75	1.6	10.73	0.82	457.2	-0.22	0.92	0.8	-4.32	0.03	0.0	
	ESFJ	-4.27	0.10	0.0	-0.75	0.64	0.5	13.22	0.78	5531.9	0.17	0.94	1.2	-1.74	0.35	0.2	
	ENFJ	-6.66	0.02	0.0	-0.40	0.80	0.7	13.94	0.77	11350.4	0.42	0.84	1.5	-10.80	0.76	0.0	
-2 log likelihood	90.70			125.91			72.71			105.07			87.44				
Cox&Snell R square	0.43			0.25			0.36			0.39			0.31				

V. 고찰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용학과 대학생들의 성격유형(MBTI)별 분포를 보면 ESFP유형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ESTJ유형, ENFP유형 순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MBTI 선호지표별 분포를 보면 미용학과 학생들의 경우 내향적 성향보다는 외향적 성향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임소연, 진정화(2006)의 연구[1] 결과와도 일치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감각형(S)-직관형(N)에 있어서는 감각형(S)이 직관형(N) 보다 높았다. 사고형(T)-감정형(F)의 경우 동등하였으며, 판단형(J)-인식형(P)의 경우 판단형(J)보다는 인식형(P)이 높았다. 응답자의 심리기능 유형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 실제적 사실 중심적(ST)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동정적 우호적(SF), 열정적 통찰적(NF), 논리적 창의적(NT) 순으로 조사되었다. 즉 미용학과 학생들의 경우 감각적 사고형(ST)으로서, 인식할 때는 주로 감각에 의존하고, 판단할 때는 주로 사고(thinking)를 하는 것으로 분석이 된다.

둘째, 성격유형(MBTI), 선호지표별, 심리기능 유형별 진로관련태도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긍정적 태도의 경우 ISTJ유형의 평균이 가장 높게 분석되었으며, 부정적 태도의 경우 INFP유형의 평균이 가장 높았다. 선호지표별 차이를 보면 먼저 긍정적 태도의 경우 내향성(I)보다는 외향성(E)의 평균이 높았으며, 감각형(S)보다는 직관형(N)의 평균이 높았다. 그리고 인식형(P) 보다는 판단형(J)의 평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정적 태도의 경우 직관형(N)보다는 감각형(S)의 평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심리기능 유형별로는 긍정적 태도의 경우 열정적 통찰적(NF) 심리기능이 가장 높게 분석되었으며, 부정적 태도의 경우 실제적 사실중심적(ST) 심리기능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성격유형(MBTI), 선호지표별, 심리기능 유형별 진로선택성향(헤어디자인, 피부관리, 네일아트, 메이크업, 분장)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격유형(MBTI)에 따른 차이를 보면 ISTP, ISFP, ENFJ 유형이 피부관리를 선호하였으며, INTP 유형은 헤어디자인과 메이크업 분야를 선호하였다. 그리고 ENTJ 유형의 경우 분장을 선택하는 성향이 높았다. 선호지표별 진로선택성향에 있어서는 외향성(E)과 내향성(I) 모두 피부관리를 선호하였으며, 감각형(S)은 피부관리, 직관형(N)은 헤어디자인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고형(T)은 피부관리, 감정형(F)은 피부관리와 메이크업을 선호하였다. 판단형(J)은 피부관리, 인식형(P)은 헤어디자인을 선택하는 성향이 높았다. 심리기능 유형별로는 실제적 사실중심적(ST) 심리기능이 피부관리를, 동정적 우호적(SF) 심리기능이 메이크업을, 그리고 논리적 창의적(NT) 심리기능과 열정적 통찰적(NF) 심리기능이 모두 헤어디자인을 선호하였다.

넷째, 미용학과 대학생들의 성격유형(MBTI)이 학생들의 진로선택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헤어디자인의 경우 ENTJ 성격유형보다는 INTP, ESFP, ENFJ 유형이 헤어디자인을 선택할 확률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피부관리의 경우 ENTJ 성격유형보다는 ESTJ, ISTP, ISFP, ENTP 유형이 피부관리를 진로분야로 선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메이크업의 경우 ENTJ 성격유형보다는 INTP, ESTP, ESFP 유형이 메이크업을 선택할 확률이 높았다. 분장의 경우 ENTJ 성격유형보다는 ESFP, ENTP, ESTJ 유형이 진로분야로 분장을 선택할 확률은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 연구는 성격유형(MBTI) 기능검사지를 활용하여 대학생의 진로선택성향의 차이와 진로선택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첫 탐색적 기초연구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표본이 일개 대학의 재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연구의 제한점이 있음을 밝힌다. 앞으로 추후 연구에서는 성격유형(MBTI)과 다른 요인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며, 대상 표본을 확대하여 표본의 대표성을 높임으로써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횡단면 연구가 아닌 대학생들의 코호트를 구축하여 종적 연구(longitudinal study) 형태로 디자인한다면 성격유형(MBTI)의 연도별 변화도 함께 고려해 보다 심층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VI.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미용학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격유형(MBTI) 검사를 이용하여 학생들의 성격 유형을 파악하고, 성격유형(MBTI)에 따른 진로관련태도 및 진로선택성향간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은 대구경북지역 K대학교 미용학과 1학년에서 4학년까지 재학생을 대상으로 성격유형(MBTI) 검사지와 진로관련태도, 진로선택성향 등에 대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124부의 설문지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주요 결과를 도출하였다.

1) 미용학과 대학생들의 성격유형(MBTI)은 ESEFP유형, ESTJ유형, ENFP유형 순으로 많았다. MBTI 선호지표별로는 외향적 성향이 더 높았으며, 심리기능 유형의 경우 실제적 사실 중심적(ST)이 가장 높았다.

2) 진로관련태도에 대해 분석한 결과, 긍정적 태도의 경우 ISTJ유형이 가장 높았으며, 부정적 태도의 경우 INFP유형이 높았다. 선호지표별로는 긍정적 태도의 경우 외향성(E)과 직관형(N)의 평균이 높았다. 부정적 태도의 경우 감각형(S)이 높았다. 그리고 심리기능 유형별로는 긍정적 태도의 경우 열정적 통찰적(NF) 심리기능이 높았으며, 부정적

태도의 경우 실제적 사실중심적(ST) 심리기능이 높았다.

3) 진로선택성향을 보면 ISTP, ISFP, ENFJ 유형이 피부관리를 선호하였고, INTP 유형은 헤어디자이너와 메이크업 분야를 선호하였다. 선호지표별에 있어서는 외향성(E)과 내향성(I) 모두 피부관리를 선호하였다. 심리기능 유형별로는 실제적 사실중심적(ST) 심리기능이 피부관리를, 동정적 우호적(SF) 심리기능이 메이크업을 선호하였다.

4) 성격유형(MBTI)이 학생들의 진로선택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헤어디자이너의 경우 ENTJ유형보다는 INTP, ESFP, ENFJ 유형이 헤어디자이너를 선택할 확률은 높지 않았다. 피부관리의 경우 ENTJ유형보다는 ESTJ, ISTP, ISFP, ENTP유형이 피부관리를 선택할 확률은 높았다. 메이크업의 경우 ENTJ유형보다는 INTP, ESTP, ESFP유형이 메이크업을 선택할 확률이 높았다. 분장의 경우 ENTJ유형보다는 ESFP, ENTP, ESTJ유형이 분장을 선택할 확률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여 대학생들의 성격유형 분포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각 성격유형별 진로희망 분야를 분석하여 단순한 호기심에 의한 진로 및 직업 결정이 아닌 개인의 관심과 성향에 적합한 세부분야를 개발·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향후 더욱 다양하고 세분화되어 가고 있는 미용관련 분야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 결과를 학생들의 진로 및 취업상담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성격유형(MBTI) 기능검사는 단지 미용분야 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는 표준화된 검사지라는 점을 감안할 때, 대학생들의 진로선택 및 취업 결정에 유용하게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1. 임소연, 진정화(2006), 미용학과 학생의 성격유형(MBTI)과 진로선택의 관계 연구, 대한피부미용학회지, Vol.4(1);155-164.
2. 박수길, 이영희(2002), 한국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변인과 개인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Vol.14(1);141-160.
3. 이주희(2004), 대학생들의 성격유형에 따른 진로의 사결정 및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Vol.6(1);103-115.
4. 여진동, 김혜숙, 고인호(2012), 방사선과 학생들의 학과선택 결정요인과 만족에 관한 연구, 보건의료산업학회지, Vol.6(1);105-116.
5. 임경미, 김주덕(2010), 미용학과 재학생들의 학업만족도와 향후 진로 방향에 대한 연구, 한국미용학회지, Vol.16(1);55-68.
6. 정영애, 김운신, 배성권(2009), 부산지역 프랜차이즈피부비만관리실과 일반피부비만관리실의 고객만족도 영향요인, 보건의료산업학회지, Vol.3(2);54-63.
7. C.G. Jung(1971), Psychological type, Collected works of C.G. Jung, Vol. 6. Poutledge & Kegan Paul, University Press, London, pp.15-39
8. Myers I.B. McCaulley M.H.(1985), A guide to the development and use of the Myers-Briggs Type Indicator,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Pala Alto, CA., pp.15-46
9. 한정아(2011), MBTI 분석에 따른 선호 패션 스타일과 컬러의 관련성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Vol.17(4);685-697.
10. 김문관, 김성봉(2012), MBTI 성격유형에 따른 비행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방식, 청소년문화포럼, Vol.29;8-32.
11. 신화남, 강희정, 노정애(2006), 미용학개론, 서울:명성, pp.10-35.
12. 강은란, 고성현, 박선주, 배영수, 임진숙, 황선순(2007), 미용경영학, 서울:광문각, pp.25-64.

13. 김정택, 심혜숙, 제석봉(1995), MBTI 개발과 활용, 한국심리검사연구소, pp.304-322.

접수일자 2012년 5월 20일

심사일자 2012년 5월 23일

게재확정일자 2012년 6월 8일